

## “노하우는 나누고 아이디어는 더하고” 국세청, 「2026 적극행정+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」 개최

- 적극행정 우수사례부터 창의학습동아리 연구결과까지 혁신성과를 한자리에
- 정책·현장분야 모두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 수상
- 비상장주식 평가 노하우, AI 판례분석 프로그램 등 창의학습 아이디어 발표

□ 국세청(청장 임광현)은 7월 3일(금), 서울지방국세청에서 「2026년 적극행정+ 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」를 개최했다.

○ 이번 행사에서는 '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\* 발표심사를 진행하였으며, 전국 세무관서 직원 100여명이 참석하여 적극행정 성과와 창의학습 결과물을 공유하였다.

\* 직원들이 국세행정 현안에 대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발굴·연구하는 대회로, '03년부터 매년 개최

### 【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해결,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 등 적극행정 최우수 수상】

□ 국세청은 국민투표(소통24)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,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 18건(정책 9건, 현장 9건)을 선정하였다.

○ 특히, 이번 선발에서는 정책분야와 현장분야에서 모두 국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‘명의도용’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최우수를 수상하여 주목을 받았다.

- 정책분야 최우수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 소득신고·사업자등록 등을 방지하기 위해, 「명의로용 안심차단 서비스」를 기획·개발한 소득자료 관리과 박지호 조사관이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었다.
- 그간 명의로용은 납세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여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하거나 사후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.
- 담당 조사관은 이러한 사후 구제의 한계를 파악하고,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명의로용 시도 자체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였으며, 이를 통해 명의로용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**<명의로용 안심차단 서비스>**

- ▶ (개요)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**6개의 국세행정 업무**에 대한 **차단·알림** 설정 가능
- ▶ (이용방법) **홈택스·손택스** 또는 **세무서 방문**으로 신청 가능(26.1월 서비스 개시)

업무명	서비스 내용
일용·간이 지급명세서 제출	신청인이 소득자인 지급명세서 제출 시 즉시 알림톡 발송
연간 지급명세서 제출	신청인이 소득자인 지급명세서 제출 시 즉시 알림톡 발송
사업자등록 신청	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사업자등록 차단
민원 증명 발급	본인 외 모든 국세 관련 민원 증명 발급 차단
국세환급금 계좌 등록	전화를 통한 국세 환급금 수령 계좌 등록 차단
종합소득세 장기 신고서 제출	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인에게 알림톡 발송

- 현장분야 최우수에는 끈질긴 추적 끝에 명의로용 진범을 밝혀내 억울한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한 대전세무서 이근수 조사관이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었다.
- 담당 조사관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 조사를 진행하면서, 단순히 서류만으로 혐의를 단정 짓지 않고 명의를 도용된 것 같다는 납세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다.
- 이에 명의로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들을 발로 뛰며 추적하였으며, 그 결과 해당 업체들의 탈루세액(2억 2,300만원)을 추정했을 뿐 아니라 명의로용 진범까지 직접 밝혀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탈세범으로 몰린 납세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.

- 선발된 **적극행정 우수공무원**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성과급 최고등급, 개인성과 가점, 성과우수격려금, 포상휴가 등의 **파격적인 혜택**을 부여한다.
- 특히, 이번 상반기 선발부터 수상자에 대한 **성과우수격려금이 확대**되고, **최우수 수상자**에게는 **성과급 SS등급\***까지 부여되는 등 혜택이 더욱 강화되었다.
- \* 성과급 최고등급(S등급) 중 성과가 특히 우수한 자에게 특별성과가산금(20%) 추가 지급
- 국세청은 **확고한 적극행정 추진의지**를 바탕으로, 성과에 **상응하는 충분한 보상**이 주어질 수 있도록 **관련 인센티브**를 지속적으로 **확대·발굴**할 예정이다.

### 【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개최, 현장의 아이디어가 빛나다】

- 올해 603명의 직원(148개 동아리)이 참여한 **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**는 **업무노하우**와 **업무개선 아이디어**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, 분야별 예선·본선을 거쳐 선정된 **총 8개의 과제**가 이날 **발표심사**에 참여하였다.
- 국세청은 발표심사를 통해 업무노하우와 업무개선 아이디어 각 분야별 **최우수 1팀, 우수 1팀, 장려 2팀**을 선정하고, 성과우수격려금·인사 가점·교육훈련실적 등 **인센티브**를 부여하여 직원들의 **창의적 시도**를 적극 장려한다.
- **업무노하우** 분야에는 비상장주식 평가노하우, 공제·감면 중복배제 검토프로그램 등 **일선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결과물**들이 출품되었으며, **업무개선 아이디어** 분야에는 AI를 활용한 쟁점별 판례분석 프로그램 등 **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**들이 제시되었다.
- 국세청은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한 **우수한 연구결과**에 대해서는 **전 직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·전파**할 방침이다.
-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의 **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도**들을 지속적으로 **발굴**하고 **공유**함으로써, **도전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**가 **확산**될 수 있도록 **지원**하고 **독려**할 계획이다.



2026년 상반기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및 창의학습동아리 발표(2026.7.3.)

담당 부서	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선주 (044-204-2301)
		담당자	사무관	오수빈 (044-204-2307)
		담당자	사무관	오은경 (044-204-2322)

**'26년 상반기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세부 내용**

분야	우수공무원	우수사례 세부 내용
정책 분야 (본청)	<p><b>【최우수】</b> 박지호 국세조사관 (소득자료 관리과)</p>	<p>▶ <b>기존</b>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등 <b>명의도용 피해</b>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<b>소득부인*신청</b>이나 <b>소송</b> 등에 시간과 비용을 부담 *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소득을 받지 않았음을 세무서에 확인 요청</p> <p>▶ <b>개선</b>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, 사업자등록 신청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<b>6개 업무*</b>에 <b>명의도용을 원천 차단</b>할 수 있도록 <b>서비스 시행</b> * 민원증명 발급,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,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등</p>
	<p><b>【우수】</b> 윤춘미 국세조사관 (인공지능혁신 담당관실)</p>	<p>▶ <b>기존</b> 기존 시나리오 기반 챗봇은 복잡한 문장형 질의의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 문의에 대한 정해진 답변만 가능하여 납세자 체감 만족도 저하</p> <p>▶ <b>개선</b> AI 기술을 선제적 도입하여 납세자의 복잡한 문장형 질문에도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<b>AI 홈택스 챗봇 개발</b> * (26.1월) 부가가치세·연말정산 분야 시범 운영 → (26.5월) 종합소득세·장려금 분야 확대 및 모바일 서비스 개통</p>
	<p><b>【우수】</b> 최영우 국세조사관 (홈택스1 담당관실)</p>	<p>▶ <b>기존</b> 홈택스 이용 사업자의 84%가 매년 수수료*를 부담하는 <b>공동·금융인증서를 이용</b>하여 <b>전자(세금)계산서를 발급</b>하고 있음 *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·금융인증서 4,400원(1년), 범용 공동인증서 110,000원(1년)</p> <p>▶ <b>개선</b> 행정안전부 협업을 통해 <b>사업자용 간편인증</b>을 국가기관 최초로 개발하여 <b>홈택스 적용, 사업자용 간편인증으로 무료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</b>이 가능하여 <b>납세협력비용 절감</b> 실현</p>
현장 분야	<p><b>【우수】</b> 백신기 국세조사관 (원천세과)</p>	<p>▶ <b>기존</b> 연말정산 <b>부양가족 공제 오류</b>자는 매년 하반기 사후적 점검 과정에서 <b>과다공제</b>로 확인되는 경우 <b>가산세</b>를 포함하여 <b>관련 제세</b>를 추징</p> <p>▶ <b>개선</b> <b>부양가족 공제 오류</b>와 같은 단순한 신고 실수를 한 근로자 <b>9만명</b>에게 <b>가산세 부담 없이*</b>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<b>정정</b>할 수 있도록 <b>개별 안내**</b>를 최초 실시 *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부양가족 공제 오류 수정으로 인해 약 24억 원의 가산세 경감 효과 발생 ** (1차 발송) 카카오톡, (1차 발송 실패시) 네이버 알림으로 모바일 안내문 발송</p>
	<p><b>【최우수】</b> 이근수 국세조사관 (대전청 대전세무서 재산법인세과)</p>	<p>▶ <b>기존</b> 제3자의 사업자번호 <b>명의도용</b>으로 12억 원의 가짜세금계산서 세금을 고스란히 떠안고 <b>탈세범 고발</b> 위기에 처하는 등 납세자의 <b>극심한 고충</b> 발생</p> <p>▶ <b>개선</b> 가짜세금계산서를 남발한 전국 16개 업체 추적·조사를 통해 <b>명의도용 진범</b>을 밝혀내고 형사소송법상 고발 의무를 적극 해석하여 <b>경찰에 직접 수사 의뢰, 억울한 납세자</b>를 구제하고 <b>탈루세액 2억 2,300만 원 전액</b> 추징</p>
	<p><b>【우수】</b> 박미숙 국세조사관 (중부청 징세송무국 징세과)</p>	<p>▶ <b>기존</b> 수많은 체납자의 전자어음 정보를 18개 금융기관에 중복하여 요청해오던 그동안의 관행으로 고액의 강제징수비 소요 등 <b>예산과 행정력 측면에서 비효율</b> 발생</p> <p>▶ <b>개선</b> 전자어음 총괄기관인 '금융결제원'으로부터 한번에 전자어음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<b>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</b>을 개정하여 <b>강제징수비 절감</b> 및 <b>징수를 제고</b> * 전자어음 데이터 연계를 법제화하여 실시간 체납자의 전자어음 추적망을 구축한 적극행정</p>
	<p><b>【우수】</b> 이원락 국세조사관 (중부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)</p>	<p>▶ <b>기존</b> 체납자는 <b>거대기업의 횡포와 심각한 병마</b> 속에서 <b>4년 소송</b> 끝 힘겹게 <b>승소</b>하였으나, 자금 부족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'<b>빈손 승소</b>' 위기 직면</p> <p>▶ <b>개선</b> 체납자의 압류된 재산 <b>미지급수표</b>를 활용한 <b>독창적 돌파구</b>를 마련, <b>현장으로 뛰어</b> 들어 이해관계인들을 <b>중재</b>하며 <b>승소대금 40억 원</b>을 수령하고 이 중 <b>31억 원 징수</b></p>
	<p><b>【우수】</b> 이병택 국세조사관 (부산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)</p>	<p>▶ <b>기존</b> 방대한 양의 <b>수시공시정보(DART)</b>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<b>한계가</b> 있어 <b>과세관청</b>이 <b>공시 즉시 이상징후</b>를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<b>어려운 실정</b></p> <p>▶ <b>개선</b> <b>공공데이터</b>를 적극 활용한 <b>DART 수시공시정보(횡령·배임 등)</b>를 실시간 자동 모니터링 할 수 있는 <b>자체 시스템</b>을 개발하여 <b>세수 사각지대 해소</b> 및 <b>30억 원 예산 절감</b></p>